

養鷄產業의 당면문제 해결방안과 사양관리 요점



吳世正

(대한양계협회장, 건대 축대 교수)

養鷄產業의 당면한 문제와 개선방안

最近 油類과동은 資源戰爭이며 앞으로 食糧 또는 飼料原料과동이 언제 어떠한 形態로 발발될지 모르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原油價引上은 諸物價上昇의 가장 큰 要因이 되며 또한 消費萎縮, 經濟不安으로 經濟成長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

이번 油類과동은 73年度보다 더욱 심각하고 長期化될 可能性이 엮비이고 있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養鷄產業도 例外는 될 수 없는 일이며 지난 3年間 난가와 계속값이 비교적 높아 恐慌을 누리게 되어 규모의 확대와 수적증대 및 經營規模가 대형화됨으로 인하여 생산의 과대를 가져왔으며 또는 외국중계의 수입 자율화와 국내 PL에서 生産된 GPS 및 PS의 확보도 CC생산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못해 과대한데다가 경제불황을 초래하였으니 가중된 양계산업의 불안은 장기화가 豫見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物價安定과 보호책으로 수입쇠고기의 방출은 畜産増殖의 역행이 되고 있으며 축산업자들의 불황을 더욱 가속화

시킬뿐 만이 아니라 생산의욕마저 상실케 하고 있어 앞날의 축산전망은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는 수입쇠고기를 꼭 먹어야 하며 또한 값싸게 먹어야 하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각성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수입쇠고기 안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값싸고 영양가 높은 국내산 육류와 계란으로 대체하는 범국민운동을 우리 스스로 전개할 때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최근 양계 불황은 생산과잉과 소비위축에 기인되었으며 유통의 불합리, 저장과 가공시설의 불비로 더욱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실여건하에서 우리 양계인은 단합하고 합심협력하여 불황을 早期終息시키고 안정된 양계산업으로 회복시키며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은

1. 正確한 飼育動態 統計集計에 參與와 努力이 되어야 한다

조생추출하보고, 종계입식보고, 성계사육현황 등을 정확히 협회에 보고 집계됨으로서 수급전망, 자율성있는 조절이 될 것이니 자신

을 위하여 전 양계인을 爲하는 일이니 빠짐없이 집계되도록 협력을 바라는 바이다.

2. 노계를 과감히 도태하여 난가를 회복시켜야 하며 육계입추를 과감히 줄일 것

불황후에 호황을 예상하고 설마 값이 회복되었는지 하는 심리와 타인의 충동에 의한 입추는 불황을 장기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우선 산란노계를 빨리 도태시키고 육계는 입란 및 입추를 현재의 1/2로 감축시켜야 한다.

3. 생산자가 유통소비에 참여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계열화, 분업화는 이상적인 결과의 목표와 희망이나 현실하에서는 사육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여 직매점,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나서야 된다.

현재 유통상인들중에는 지나친 마진과 폭리로 소비의 위축과 불신을 가져오며 생산자를 희롱과 농락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직매공판장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4. 쇠고기대신 닭고기와 계란으로 대체소비 유도하는데 적극 참여

전 양계인 스스로가 수입쇠고기는 먹지 않고 값싸고 영양가 높은 계란과 닭고기를 먹자는데 솔선 실천하며 또한 요리의 다각화로 기호성 증대, 部分肉解体販賣로 消費擴大, 品質向上으로 食品價値向上, 包裝方法 改善으로 식품의 고급화등 다방면으로 소비촉진에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여야 한다.

5. 規模의 擴大보다 내적 충실로 생산성을 提高

시설의 기계화, 大形化, 환경의 안정화와 이상적인 환경조성으로 위생관리 능력에 알맞는 適正首數를 飼育하여야 하며 飼育管理의 철저로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며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물의 유리한 판매를 하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

장기적 전망하에 목표는

- ① 양계사육 농가의 등록제와 사육수수 쿠퍼

制實施

- ② 지역별로 양계조합을 구성하여 系統出荷, 分業化, 共同購販事業, 共濟事業, 共同防疫와 衛生管理, 共同利用 및 貯藏加工施設 구비이 되어야 한다.
- ③ 양계산업 진흥기금의 조성
- ④ 계란과 계육의 전문시장의 개설과 운영
- ⑤ 가금산업연구소의 설치
- ⑥ 닭고기와 계란먹는 날의 제정
- ⑦ 세율의 현실화로 인하조정
- ⑧ 양계진흥법의 제정
- ⑨ 시설의 근대화촉구와 가공 및 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수급조절 기능의 강화
- ⑩ 방역위생의 보다 철저한 각성과 실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항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기 앞서 우리 스스로가 공동 목표와 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 협력하여 이룩하도록 적극 참여하여 共生, 共榮, 共存, 共益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하니 私利, 私慾이나 利害를 초월하고 利己心을 버리고 次元 높은 단결로 양계산업 진흥의 先導役軍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본다.

環境管理와 日常管理의 改善點

능력이 우수한 외국계가 무제한 도입되고 사료 또한 양질의 사료를 먹일 수 있는 현실이며 그間 규모의 확대와 首數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환경관리와 일상관리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前近代의이고 인습과 타성으로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비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통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最近 인건비의 상승과 求人難은 管理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로 困한 과오를 병아리와 飼料品質에만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라며 極히 상식적이고 다 아는 사실이나 실천과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強調하는 意味에서 쓰는 바이다.

“현재의 能力向上은 管理의 개선과 내적 충실에서”

1. 안정된 생활환경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계사에 사람이 접근하면 닭이 놀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평소 관리자가愛情없이 조잡하고 포악하게 다루어 닭이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닭이 잘 놀라는 공포심에 쌓여 있으면 능력의 저하는 물론이고 도태계가 많아진다. 그리고 成長中에는 強弱離가 많아 균일한 발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평소 관리자는 행동에 조심과愛情을 가지고 정성껏 닭을 보살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不安의 要因은

- ① 계사내가 너무 밝았을 때
- ② 환기불량과 과습의 경우
- ③ 강풍이 닭에게 직접 당던가 바람에 흔들리는 物件이 있을 때
- ④ 충격적인 소음과 불빛, 外敵浸害
- ⑦ 시설의 미비로 흔들리던가 출렁거릴 때
- ⑥ 규칙적인 일상관리를 하지 않을 때
- ⑦ 사료와 급수를 적량 섭취하지 못하였을 때
- ⑧ 관리자가 자주 바뀔 때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계사내에서 불안으로 몸을 다치고 충격을 받아 弱離 또는 폐계가 은연중에 많이 나오니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최대한 닭이 안정된 生活을 하게끔 함으로서 生存率을 높이고 균일성있게 하며 경제적 수명을 길게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生産性을 높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최근 無窓鷄舍에 機械化는 닭의 안정감을 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2. 광도와 광선의 장단은 능력에 크게 영향

- ① 광도는 1cm² 당 5 럭스 정도가 좋다. 닭이 사료의 채식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된다. 너무 밝으면 신경의 과민과 불안의 요인, 탁우성, 알을 깨어 먹는 버릇이 된다. 그러니 開放式鷄舍에서 창문을 너무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비닐계사에서는 가마나 검은 종이로 가리워서 아늑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광도를 強하게(밝게) 하였던

것을 弱하게(어둡게) 하면 안된다. 그러니 항상 일정하게 또는 점진적으로 밝게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는 것이 좋다.

- ② 광선의 장단은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병아리 발육에 광선의 장단은 큰 영향을 끼치게 하니 부로일러 육성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方法은 1時間 불을 켜서 모이와 물을 먹게한 다음 4시간 잠을 재우는 것이 가장 잘 자라게 한다.

즉, 발육성적 순서를 적으면 1-4, 1-3, 1-5, 2-3, 2-4, 2-6, 3-5, 3-3, 1-2, 6-6, 12-12로서 12시간 불을 켜서 관리하고 12시간 재우는 것이 발육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 현재 육계사육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성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앞 숫자는 일조시간이고 뒤의 숫자는 휴식 즉 소동시간임)

산란계에 있어서도 일조시간 즉 점등시간의 長短은 性性熟, 雄鷄의 活力, 排卵速度 換羽等に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점등관리는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특히 산란중에 있는 것은 일단 일조시간이 길어진 것은 단축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불규칙적인 점등관리를 하여도 아니된다.

3. 온도는 생리적 영향은 물론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 ① 成鷄의 適溫은 13~15℃ 이다.

환경온도가 낮으면 대사기능이 昂進되며 유지사료가 많아지고 고온이면 血流의 調整, 呼吸增進, 態勢變化, 蒸散量과 飲水量 增加等으로 사료 섭취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니 계사내는 항상 13~15℃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防暑, 防寒을 하여야 한다.

특히 하절의 더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다소나마 선선하게 하는 방법은

- i) 人工換風으로 換氣시키는 방법
- ii) 지붕위에서 물을 뿌리는 방법
- iii) 계사내에 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늘지게 하는 방법
- iv) 찬 냉수를 먹게 하는 방법

- v) 계사 주변에 복사열을 받지 않게 낮은 풀을 심도록 하는 것
- vi) 벽을 두껍게 하고 천정에 단열재를 넣는 것
- vii) 계사바닥의 찬 지하열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덥지 않도록 주의와 개선이 촉구된다.

표 1. 환경온도별 산란율과 사료요구율

氣 温	卵 重	産卵率	飼料要求率
-5°C (23°F)	57.2g	26%	12.3:1
2.8(37)	56.5	65	4.0:1
7.2(45)	56.2	74	3.5:1
12.8(55)	55.5	78	3.3:1
18.3(65)	54.8	75	3.3:1
23.9(75)	53.6	68	3.4:1
29.4(85)	52.2	56	3.9:1

② 병아리의 適溫維持

어린병아리는 체온조절 기능이 되지 않으므로 加溫하여 생리적 지장을 주지 않도록 羽毛의 1次 발생되는 3週까지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지나친 고온이나 저온이 되지 않도록 병아리의 生活活動狀態를 注視하며 調整管理하여야 된다.

高溫育雛보다는 약간 저온의 방향이 좋다. 高溫인 경우 발육의 지연은 물론 抗病性이 적으며 羽毛의 發生이 지연된다.

4. 환 기

닭은 他家畜에 비하여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산소의 요구량이 많다. 成鷄 1수당 안정시 1日 1m³의 호흡량을 가지며 활동이나 고온시에는 2~3배가 증가된다.

그러면 계사나 육추사내에서 신선 공기를 유지못하는 원인 즉 O₂의 감소와 CO₂의 증가 원인을 열거하면

- i) 닭의 호흡교환에 의한 O₂의 감소와 CO₂의 증가
- ii) 실내 급온시 연소산화에 소모되는 O₂의 감소

- iii) 열원 또는 산화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오염
- iv) 수증기와 먼지 발생에 의한 공기 오염
- v) 배설물과 자릿것에서 발생하는 가스 증가
- vi) 고온인 경우 공기의 팽창으로 희석과 호흡량 증가
- vii) 관리자의 흡연과 호흡가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선한 공기의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환기를 인공적으로 철저히 시켜야 한다.

환기의 불량은 疾病多發生의 주 원인이며 능력 저하에 큰 원인이 되니 계사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먼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공환기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

특히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더욱 신경을 써서 환풍과 환기에 각별히 유의할 것.

5.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음료수를 먹일 것

水源地의 주변이 불결하면 대장균등 병원체에 오염되기 쉬우니 우물물의 청결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또한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이용, 필수 무기성분함량이 풍부한 수질을 선택하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질을 한번쯤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음수는 무기성분의 공급과 질병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니 각별히 유의할 것.

6. 기타 환경조건

- ① 토성과 토질 및 위치와 방향의 선정
- ② 풍향과 풍속을 고려
- ③ 잡음과 소음이 없는 곳
- ④ 자연공해가 없는 곳
- ⑤ 조류, 곤충, 獸敵이 없는 곳
- ⑥ 타인 계사와 인접되지 않은 곳
- ⑦ 地勢와 位置가 좁은 곳
- ⑧ 병원체의 침입경로를 차단하기 용이한 곳
- ⑨ 지대가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
- ⑩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성높은 위치 선정

육추율을 높이는 관리

1. 병아리 구입과 선택

- i) 생산성이 우수한 계종 선택
- ii) 종계장의 위생상태와 사양관리 상태를 보고 확인한 후 결정
- iii) 부화장의 위생관리와 기술
- iv) 부화업자의 신용도
- v) 광범위한 여론청취와 실태조사후 결정
- vi) 예방접종철저 확인

2. 육추환경과 준비사항

- i) 가급적 傘形育雛器에 平飼로 할 것
- ii) 入雛前 器具의 수리, 소독, 소요물자를 미리 준비완료
- iii) 환경적 적합하도록 만반의 준비
(온도, 습도, 환기, 안정도, 보온시설등)

3. 육추요령

- ① 안정휴식을 시킨다
실내는 가급적 어둡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하며 入室時 雌雄別, 系統別, 發生時差別, 體重別, 強弱別로 區分 입실 휴식케 한다.
- ② 먼저 먹일 것
물은 깨끗한 微溫水를 먹이는데 병아리 털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물은 맹물이 아니라 피로회복과 건강을 위해
- i) 미온수+설탕 2~5% 혼합급여
- ii) 微溫水+설탕+비타민제+항생제까지 적량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혼합수의 남은 물은 사료를 개어서 주는 것이 좋다.
- ③ 첫모이급여
卵黃의 소화가 70~80% 소화되었을 때 급여하는 것이 좋으며 발생이 빠른 것을 기준하여 첫모이를 급여할 것.
첫 모이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삶은 卵黃을 급여하는 것이 좋으나 첫모이 사료를 별도로

만들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급여기간은 2~3일간이며 사료를 물에 반죽하여 주는 것이 소화율 採食이 容易하며 偏食이 적다.

그 다음부터 초생추사료를 급여한다.

④ 採食與否確認區分

첫모이를 급여한날 저녁에 모이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모이주머니(소낭)를 만져서 區分 먹지 않은 것은 따로 구분하여 다음날 특별히 주의하고 관리를 할 것, 다음날 저녁에도 다시 소낭을 확인하여 採食與否를 확인 구분하면 병아리의 강약이 없이 균일하게 육성시킬 수 있다.

병아리의 강약은 부화과정에도 있지만 입추후 첫모이 먹으면서 2~3일 사이에 눈에 띄지 않게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입추후 2~3일간 採食與否를 일일이 만져서 구분 사육함으로써 균일하게 육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신경은 써야 될줄 안다.

⑤ 관리는 1시간 먹이고 3~4시간 휴식시키는 점등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4시간 점등방법도 있으나 사료효율이 떨어지며 밤새도록 불한번 켜지 않고 급수급이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쁘다.

최소한 밤에 2~3회는 불을 켜고 30분~1시간씩은 관리를 하여야 된다.

⑥ 밀사와 밀집하는 관리는 가장 나쁘다.

⑦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지말 것

⑧ 육추중에 이동은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키울 것

⑨ 급격한 변화나 충격을 주지말 것

⑩ 예방접종은 원칙대로 실시하되 스트레스를 적게 주며 접종전후에 항생제와 비타민제를 강화 급여할 것

⑪ 약추는 즉각 분리 관찰하고 원인을 강구하며 대책을 세울 것

⑫ 육추사내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금하고 관리기구도 타계사의 것과 교류시켜서는 아니된다.

⑬ 환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할 것

⑭ 풍중소독과 병원체 침입을 완전 차단토

록 할 것

⑮ 자리깃은 항상 건조하게 하여 줄 것

⑯ 육계전용종은 평사에서 출하할 때까지 이동시키지 말고 육성 출하할 것

⑰ 期別飼養으로 飼料効率의 向上은 물론 생산비를 절약할 것

⑱ 관리자의 정성이 육추율을 좌우하니 성심성의껏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연구와 창의로 노력하는 것 뿐이다.

. 우리는 아직도 인습과 타성의 젖어 적당히 하며, 알지 못하면서 아는척 하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자의 응고집, 아집을 버리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며 개선함으로서 항상 발전이 있고 성공의 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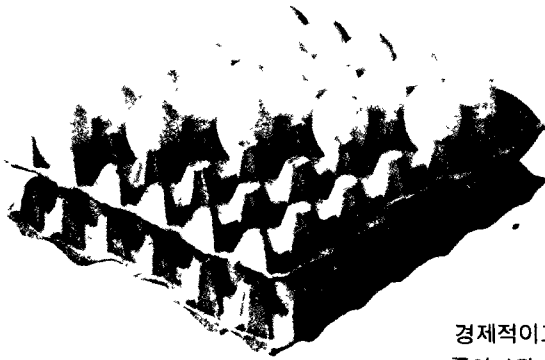
관리자로 하여금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성심성의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의 부여가 있어야되고 대우를 함으로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성공의 길이 된다.

장기화될 불황에 대비하여 양계인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와 협력이 있어야 하며 남의 탓이나 잘못을 들추기 앞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제하며, 남에게 무엇을 하고 바라기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양계업발전을 위한 전양계인의 단합과 협력이 있어야 되며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爲하여는 새마음精神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인내심을 거듭 부탁올리며 여러분 사업의 번영과 행운을 빕니다.

종계장 · 부화장의 방역은

종이난좌에 맡겨 주십시오!!



종이난좌를 사용하시면

- 무서운 질병의 전파를 막습니다.
- 파란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종이난좌로 방역관리는 안심!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77번